

##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요일 4:1)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요일 4:2-3),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요일 4:7)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주셨다.

첫 번째 분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이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가를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요일 4:2-3). 이것은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믿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믿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진 자이며, 그런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분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통해서이다. 요한일서 4:5-6에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오직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의 말들을 그대로 믿고 인터넷에 올라온 말들을 분별없이 진실로 믿는다. 악한 무리들과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인터넷과 대중 매체들을 이용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진리의 말들을 듣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뉴스들, 광고들,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 온 새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특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요일 4:6).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라고 하였는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사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말들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진리의 영을 가진 자이며,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진리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진 자인가?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거나 거기에 미혹된 자인가? 진리의 영을 가진 자인가? 혹은 미혹의 영을 가지거나 거기에 미혹된 자인가? 하나님의 분별법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영들을 시험해야 할 것이다.

